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2024
JANUARY

VOL.

261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Open Doors

칼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박해 뉴스 이집트

- 황량한 미래가 될 것인가, 희망의 미래가 될 것인가?
-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다

현장 스토리 니카라과

- 목사님들을 위한 제자훈련과 목회훈련 사역
-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

박해와 선교현장

방글라데시 Bangladesh

북한선교현장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1)

Heart To Heart

Happy New Year! /

2024년 한국오픈도어 사역계획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1월호 | 통권 261호 |
등록번호-종량,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황자경,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이정현,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OPENDOORS CORE VALUE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SUPPORT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
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
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NTENTS

03 칼럼

-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04 박해 뉴스

- 이집트: 황량한 미래가 될 것인가, 희망의 미래가 될 것인가?

- 이집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다

08 현장 스토리

- 니카라과: 목사님들을 위한 제자훈련과 목회훈련 사역

- 니카라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

11 박해와 선교현장

- 방글라데시 Bangladesh

18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1)

21 Heart To Heart

Happy New Year! / 2024년 한국오픈도어 사역계획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COL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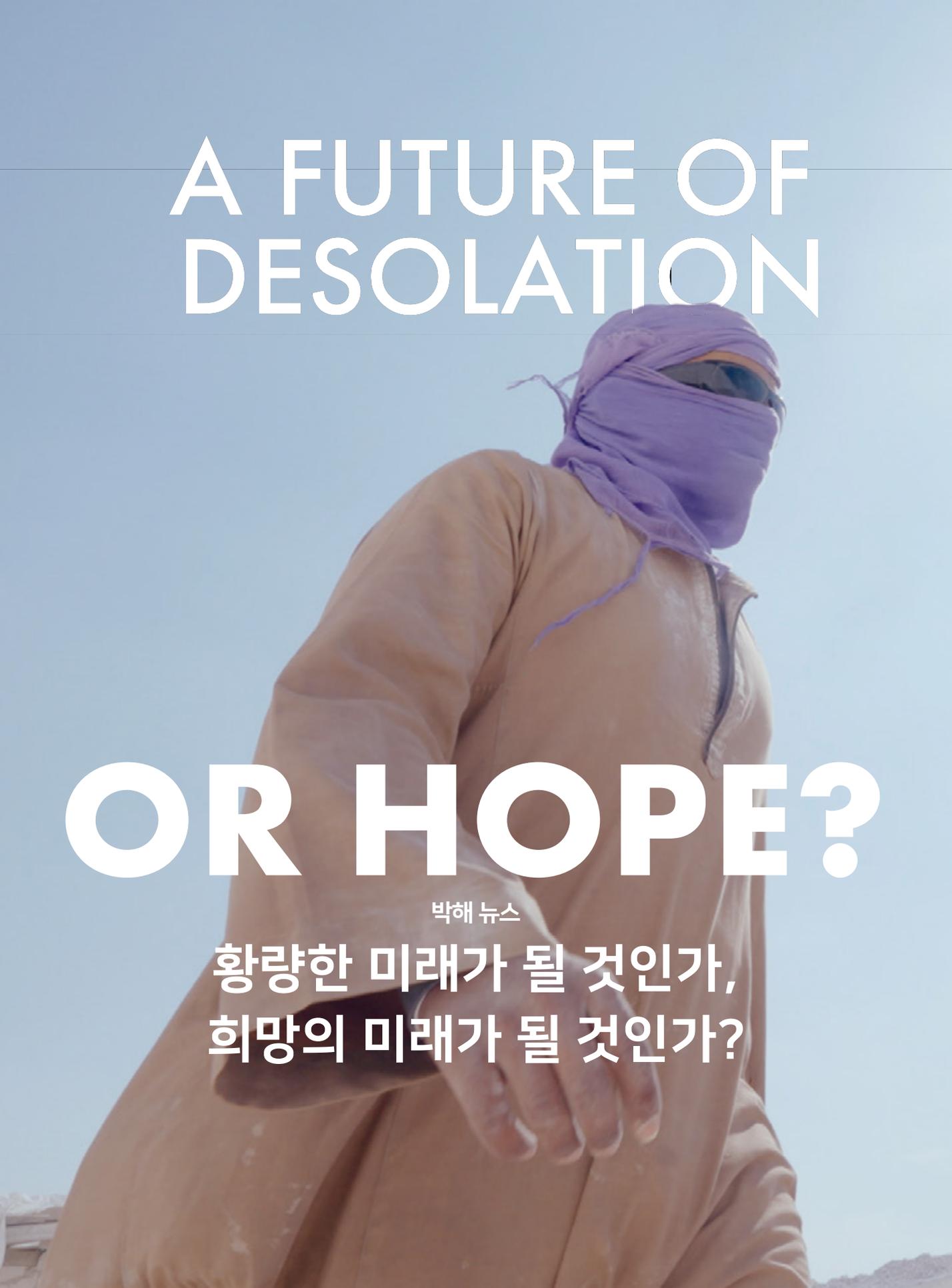
김성태 목사

(충신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브라더 앤드류가 50년도 중엽에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고, 공산권 진영에서 핍박을 받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동구라파 공산주의 국가들 뿐 아니라 공산주의 중추국인 구소련 지역을 방문하여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선교의 주인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70년도 초에 중국대륙의 문을 열어주시므로 브라더 앤드류는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브라더 앤드류의 믿음의 순종은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1980년 초에 중국대륙의 가정교회와 연결하여 1백 만권의 성경을 공급하는 진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고, 이것은 후대의 역사가 평가하듯이 중국가정교회의 성장에 시금석과도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복음미수꾼이란 약 천 만권이 팔린 자서전적인 책을 출판하고 나서 그의 신원이 공산권 하에서 드러나므로 더 이상 공산권 진영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브라더 앤드류의 관심을 중동과 걸프지역인 이슬람 진영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슬람 치하에서 온갖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던 교회와 교인들을 위로하며 그분들이 신앙인으로 생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여 서방세계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슬람지도자들을 중동과 걸프지역 각 나라에서 만나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원초적으로 전하면서 ISLAM을 "I sincerely love all Moslem"으로 바꾸어 부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할 것을 온 세계의 교회지도자들에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무슬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폭력과 증오로서 교인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자적 통찰을 가지고, 이슬람선교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을 함께 모아서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는 운동을 추진하였고,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서안지구 가자에 기독교서점 및 출판사를 세워 가자지역의 팔레스타인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지역에 성경 대

학을 세울 때 배후에서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가자지역이 거의 황폐해지고,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모습을 보면서 브라더 앤드류의 선지자적 통찰과 가슴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활동하던 그분의 모습이 그리웁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젊은이의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과 순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 오픈도어선교회는 약 69개국의 나라에서 신앙 때문에 온갖 차별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을 브라더 앤드류의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픈도어선교회를 축복하셔서 가장 어려운 선교사역을 수행하며 대다수의 선교일꾼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그런 적대적 환경 가운데서 일할 때 세계개신교선교기구 중에 거의 4-5번째의 규모를 가진 선교단체로 성장시켜주셨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80년대부터 북한선교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북한을 선교정탐 하였으며 1990년도 중반에 나선지역이 국제사회에 소개되었을 때 브라더 X가 나선에 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 내부에 지하교회와 교인들이 있음을 알고, 제 삼국을 통해서 그분들과의 성공적인 접선과 북한지하교회를 도우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활동하였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브라더 앤드류를 인도하였듯이 북한 지하교회의 교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오픈도어선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거의 75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되고, 거의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연약한 지체가 되는 북한교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요, 사랑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산하며 무엇을 뿌리겠습니까? 2024년 한 해에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과 진실어진 사랑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FUTURE OF
DESOLATION

OR HOPE?

박해 뉴스

황량한 미래가 될 것인가,
희망의 미래가 될 것인가?

이집트의 젊은 기독교인들은 수그러들지 않는 박해로 인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절당하고, 팔시 받고,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믿음과 교회의 미래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하나님도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닮았죠. 왜 저를 선택하셔서 그 고통을 겪게 하셨는지 말이에요.” 바허의 말은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한은 걱정스러운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수그러들지 않는 박해가 한 사람의 믿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저는 삶에 대한 희망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이 젊은 이집트 청년은 평생 동안 탄압에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한계에 이르기까지 매년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바허만이 아니라는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상부 이집트를 걸쳐 젊은 신자들은 끊임없는 차별과 굴욕, 그리고 거절을 견디고 있습니다. 소녀들은 거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취업에 대한 선택권이 너무나 제한되어 기독교인들은 가장 위험하고 임금이 적은 직업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치명적인 경제 위기는 단지 고통과 곤란을 혼합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박해가 젊은 이들의 희망과 목적을 빼앗아가는 중동 대부분에 걸쳐 반영됩니다. 한 세대의 믿음은 박해에 짓눌릴 위험에 처했고 그렇게 된다면 지역 내 교회들의 미래는 황량해질 것입니다.

부상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다

바허의 가정은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13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바허는 차별로 인해 상부 이집트의 한 석회암 채석장에서 위험한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보호도 없고, 건강 보험도 없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3:2)

박해가 아니었다면 바허는 결코 채석장에서 일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몸을 갈기갈기 찢을 수 있는 날이 달린 기계를 가동해요. 채석장 노동자들이 팔다리를 하나 잃는 것은 흔한 일이죠. 이것은 노출된 전선으로 인한 감전의 큰 위험, 그리고 폐손상과 안질을 일으키는 분진에 더한 것이예요.” 바허는 일주일 만에 끔찍한 사고에서 팔을 절단 당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단지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한 쪽 팔을 볼 때 마다 우울했어요.” 그리고 바허의 형제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는데, 채석기에 의한 먼지로 질식사 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허는 형제를 추모하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형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졌고 삶에 대한 희망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흔들리다

박해는 바허의 삶과 희망을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그의 믿음을 극심하게 흔들었습니다. 트라우마를 입은 바허는 그의 마을의 기독교 가정집들이 약탈당하고, 불에 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에 의해 딸들이 납치당할까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인 부모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직업을 찾는 가운데 거절당했습니다. 바허는 격노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왜 저를 버리셨나요? 왜 저를 선택하셔서 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장애를 갖게 하셨나요?”

미래를 다시 쓰다

바허의 미래는 황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과 목적이 있는 미래입니다. 그를 희망과 목적이 있는 미래로 인도해 줄 여러분과 같은 동역자님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멈추고,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지지로 바허는 다른 수 백명의 채석장 노동자들과 함께 오픈도어 파트너들로부터 필수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허는 소액 대출을 통해 새로운 양 사육 사업을 착수할 수 있었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세워갈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어야 했던 트라우마에 대해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의욕을 갖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 주셨어요.”

오픈도어는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채석장의 아주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박해 받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여러분의 지지가 긴급히 필요합니다. 이들이 조국에 남아 계속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다. 동역자님들께서 물질로, 기도로 지지할 때, 이 젊은 이들의 미래는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바허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보안 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 희망과, 믿음과, 목적이 있는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바허를 위해 기도합니다
- 이집트의 박해 받는 젊은 신자들, 특히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채석장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의 교회들이 수그러들지 않는 박해를 견뎌 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물해주세요

- 후원을 통해 박해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의료 돌봄과 지원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채석장 노동자들이 믿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훈련과 제자훈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소액 사업 대출을 통해 박해 받은 기독교 가정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후원하기
(CMS 중동 / 걸프)

계좌 입금 :

우리은행 1005-701-884976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박해 뉴스

이집트_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다

무니르는 겉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죠. 가족들은 그를 잘 돌보아 주었고, 부유한 아버지는 무니르의 꿈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돕고자 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할 계획이었고, 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니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큰 대가를 치루고 쉬운 삶을 포기했습니다.

충분히 모순적이게도, 무니르는 학교에서 신자들에게 가해진 차별에 화가나 기독교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반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욕을 당한 사건은 기독교에 대한 저의 호기심을 촉발시켰어요. 저는 기독교인 환멸에 대한 논의 내내 기독교인 급우들의 얼굴에 슬픔과 수치심을 목격했고 무슬림으로서 부끄러웠어요. 모욕은 한 동료 무슬림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는데,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나서는 그들을 도울 수 밖에 없었어요. 이 사건은 저로 하여금 이전에는 결코 자세히 관심 갖지 않았던 기독교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게 했어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무니르는 자신의 이슬람 신앙을 소중히 생각했지만, 기독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에게 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했지만, 신앙의 자유와 상호 존중에 대한 형제의 입장과 반응은 무니르와 달랐습니다. 무니르는 형제의 방어적인 태도가 못마땅했고, 기독교인들이 불충하고 성경이 왜곡된 것에 대한 증거와 예시를 보여 주도록 도전했습니다. 무니르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한

자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왜곡되었다고 생각했던 책이 사랑, 평화, 그리고 자비에 대해 옹호하는 것에 이끌린 무니르는 기독교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그를 힘들게 한 코란의 한 구절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슬람 신앙을 맹세할 때 까지 싸움을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폭력을 추구하는 것과 기독교의 사랑의 메세지 사이의 상충은 종교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밖에 없게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기독교는 무니르의 마음을 더욱 사로 잡았습니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들어간 직장에서 도전을 좋아하는 한 기독교인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성경을 직접 보고 싶었던 무니르는 자신이 본문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기대하며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성경을 건네며 증거를 찾도록 도전했습니다. 무니르는 그 후 몇 시간, 몇 날 동안 마태복음 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깊은 메세지와 폭력의 부재는 그를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고 금지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은 그가 듣고 자란 이야기와 모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니르는 새롭게 발견한 믿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에게 거부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무니르가 기독교식 주문에 걸려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형제는 무니르를 묶고 때렸습니다. 마침내 무니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땀가를 치를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 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무니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린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시에서 지낼 곳과 할 일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불을 지핀 그 변화시키시는 사랑에 대해 간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니르는 자신을 부르시고, 저희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만약 당신이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마음을 굳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조건없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요.”

*보안 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현장 스토리

니카라과 목사님들을 위한 제자훈련과 목회훈련 사역

니카라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레온에서 30명의 목사들이 아름다운 교회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적갈색의 종탑들은 도시를 둘러싸는 담녹색 산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같은 그림 같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로서 마주하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중대한 이유이죠. 목사들은 정부로부터 계속 박해를 받는 가운데 제자훈련과 목회훈련을 받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호라시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하여 진실되게 설교할 자유가 없어요. 저희는 집에서 조차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죠.” 2007년, 니카라과 새 정부의 도래와 함께 교회에 대한 약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산불 대처 및 제기된 연금개혁에 대한 극도의 사회적 항의와 함께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정부의 부당함과 인권 침

해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교회들은 “불안정 인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관료는 의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법적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023년, 니카라과는 처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월드와치리스트 상위 50개국에서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실행하고자 했던 많은 복음 전도 활동들은 경찰 또는 지역 시장의 사무실을 거쳐 정부로부터 거절당하고, 금지되고, 거부당했어요.” 이 제한은 이곳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염려를 낳습니다. 자원과 성경적 훈련이 부족한 상황에서 목사들은 교회를 위한 지원을 받거나 합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정부 제안에 유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훈련은 호라시오 목사를 비롯한 다른 목사들이 목회 소명 가운데서 성장해 나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호라시오 목사는 21년 전, 35세의 나이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다른 이들과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목사는 가족들의 지지를 늘 경험했습니다. 근처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습니다. 오늘, 그가 인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간의 워크숍은 호라시오 목사를 비롯한 다른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유익을 끼쳤습니다. 제자인 그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제자훈련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강의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총 239명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호라시오 목사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34명의 성도가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호라시오 목사와 가족들, 그리고 레온을 비롯한 니카라과 전역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정부의 제한 가운데서도 훈련은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이끌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경험하는 영적 성장은 더 높은 예배 및 교회 활동 참여율로 이어졌습니다. 오픈도어 동역자님들의 기도과 후원 덕분에 호라시오 목사의 교회와 다른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바를 완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19-20

호라시오 목사의 교회에는 현재 57명의 성도가 매주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워요.”

*보안 상의 이유로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니카라과_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

파블로 목사의 가정은 늘 변변찮은 형편이었기에 그와 형제자매들은 공부를 하여 가계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하루는 군인들이 파블로 목사의 학교로 와서 국가에 봉사할 14세 이상의 젊은 이들을 선정했습니다. 17세였던 파블로 목사도 선정되었고 당시의 게릴라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산디니스타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Patriotic Military Service (SMS)에서 10년이 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전쟁을 직접적으로 목격했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원칙을 저버리는 두려움은 그가 많은 경우에 적을 공격하기 전에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니카라과 혁명 동안 전쟁의 중심이었던 말라쿠쿠 언덕의 폭탄과 총탄으로부터 위험에 처했습니다. 파블로 목사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천막에서도, 휴식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그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고 파블로 목사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동료 사울에게 물어보았는데, 사울은 파블로 목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죽음, 혼란과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파블로 목사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고, 심각한 심리적 및 정신적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떠나기로 결단했고 도망치기 위해 시도하는 동안

잡혀서 정부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거 기간 동안 투표소를 맡곤 했는데요, 1995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었고, 저는 바로 공직을 그만두고 목사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보국 복무를 그만두는 결과는 오늘까지도 파블로와 그의 가족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대에는 사임에 대한 구실이 없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는 탈영병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전부 제출하고자 수차례 시도한 후에도 그의 자녀들은 대학 입학 허가가 거부되고, 아내는 취업 기회가 줄고, 그리고 파블로 목사가 2000년도에 설립한 교회의 법적 자격이 거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파블로 목사의 교회는 법적 자격이 없고 법률상으로는 계속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에 파블로 목사와 성도들은 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2022년에 법률 제1115호를 시행하면서 나라 안의 많은 교회들이 이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오르테가 정부가 그와 일치하지 않은 교회 대표자들, 곧 교회의 물리적 기반 시설 폐쇄 및 몰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압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모이고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정부는 교회의 법적 자격을 거부하고 저희를 막기 위해 싸워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블로 목사는 오픈도어가 준비한 ‘다른 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기법 워크샵’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446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 같은 워크샵에 참석해 회중을 지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시행하는 것을 배우고 성도들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고 계시며 박해 받는 이들을 돕는 사역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역에 감사해요. 저는 교회 사역을 더욱 개선하고 지속하기 위해 많이 배웠어요. “다른 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기법” 및 “단체들을” 위한 워크샵을 통해 저희는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배웠어요. 정말 큰 축복이에요.”



동역자님들께 드리는
기도요청:

파블로 목사를 비롯한
그의 가정과 교회의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3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30위

방글라데시 (Bangladesh)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박해지수 총합은 100점이다 (16.7 × 6개 영역 = 100).

주목할 만한 점 (Key findings)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또는 민족/종족 배경 출신의 개종자들은 가장 극심한 규제, 차별, 그리고 공격들에 시달린다. 그들은 공격의 두려움으로 보통 작은 가정교회 또는 비밀 집단에 모인다. 무슬림 다수 가운데서 사역하는 많은 이들이 펜테코스트파(오순절파)인 복음주의 교회들은 박해에 직면한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교회와 같은 역사적 교회들은 점점 더 공격과 살해 위협에 직면한다. 대부분 산탈족에 속한 부족 기독교인들은 증가하는 두배의 취약성 (민족 및 종교적 소수에 속하는)과 토지 수탈 문제 및 그들에 겨냥한 폭력으로 씨름한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도망한 무슬림 로힝야족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괴롭힘과 강한 압박에 직면하기도 한다.

방글라데시 (Bangladesh)

국가 정보

지도자 : 셰이크 하시나 와제드 총리

인구 : 167,886,000 명

기독교인 수 : 938,000 명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국가 상황

주요 종교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938,000	0.6
이슬람교	149,113,000	88.8
힌두교	15,680,000	9.3
불교	1,221,000	0.7

전통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와 정부 간의 관계는 좋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 가운데 공격성이 증가했다. 폭력을 억제하고 중단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권 운동가들과 소수 종교들에 불법적인 살인과 공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는 대부분 수니파인 1억 5천만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있다. 최근까지 국가는 세계 다른 지역들을 괴롭혀온 급진주의 형태를 멀리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이것이 바뀌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들이 있다. 인구의 9%가 약간 넘는 사람들이 힌두교이고, 이들은 극단주의 무슬림들에 의한 공격에 시달린다. 기독교인들은 아주 적은 소수이다. 이들은 소외를 경험하고, 만약 소수 민족 집단에 속하면 두 배의 취약성에 직면한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 또는 그들을 둘러싼 이슬람 문화로부터 금세 압박 아래 놓이게 된다. 이들은 많은 폭력에 직면한다. 교회들과 모든 소수 종교

교들은 나라 안의 이슬람 보수성과 과격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에도 정치를 멀리하고자 힘쓴다.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 급격하게 장악 당하면서 방글라데시의 소셜 미디어는 찬사와 감사가 넘쳐났다. 2022년 6월에 총리 정권을 위해 자선 단체들을 규제하는 NGO 사무국은 오디카의 등록 갱신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인권 단체는 허위 정보 발행과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죄로 기소되었다. 이 추론은 불법적인 살해와 강제 실종에 대한 곤란한 보도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다. 이는 특히 소수 종교들에게 있어서 정부의 부당함을 외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히 보여준다.

지역별 상황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구릉지대와 그 곳의 많은 소수 민족 집단들이 있는 북부 지역은 기독교인들의 권리가 대다수인 무슬림과 소수인 불교 모두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이 많이 간과되는 분쟁지대이다. 지난 수년간, 방글라데시가 인접한 미얀마에서 온 700,000명 이상의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분쟁지대가 생겼다. 대부분은 방글라데시의 동남쪽 끝에 있는 콕스 바자르 주에 있다. 국가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도 이들을 돌보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 송환 노력들은 정체되

었고, 난민들이 수용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일부는 이슬람 과격화를 겪을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방글라데시에도 영향을 미친다. 추가적으로, 군사 정권이 계속 미얀마의 라카인주에 남아 있는 로힝야 소수민족을 탄압함으로써 이들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난민 캠프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로힝야족의 집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늘어나는 압박과 폭력에 직면하지만, 도망갈 길이 없다.



박해 받는 성도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대사관 직원과 중요한 직물 부문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주시되고 때때로 극단적인 이슬람 과격분자들에 의해 위협을 당한다. 이 공동체는 미얀마에서 온 로힝야족도 포함한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방글라데시 성공회(성공회)를 포함한다. 이들은 흔히 위협을 당하고 감시를 당한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이 범주는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부족과 같은 다양한 배경 출신의 개종자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가장 강한 박해에 직면하고, 이는 특히 그들의 가족들과 지역사회로부터 오고 보통 비밀리에 무리로 모인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복음주의, 침례교, 그리고 펜테코스트파(오순절) 회중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성회는 예를 들어 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정교회에 모인다. 이들은 자주 위협을 당하고, 때때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한다.

박해와 차별의 주된 요인

이슬람의 탄압과 혼합된 독재정치:

방글라데시의 정치는 점점 더 아와미연맹과 방글라데시민족주의당(BNP) 사이의 적대감이 지배한다. 양측 모두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이슬람 단체들에 굴복한다. 비록 기독교인들과 다른 소수종교들이 다른 많은 무슬림 국가들에서 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 증가하는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넓은 방글라데시 사회에서 자신들이 취약함을 발견하고 흔히 희생양들로 이용되는 것을 뜻한다. 야당이 정치적 폭력의 역사를 가진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과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특히 당황스럽다. 미얀마를 떠나 들어온 방대한 수의 로힝야족 난민들은 추가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압박을 자아냈다. 코로나 19팬데믹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은 독재정치를 더 발전시켰다.

종교적 민족주의 - 민족종교적 적대감 및 씨족의 탄압과 혼합된 불교도와 힌두교도

방글라데시에는 기독교인들 보다 두 배 더 많은 불교도들과 10배 더 많은 힌두교도들이 있다. 불교도들은 대부분 인도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치타공과 치타공 구릉지대에 집중되어 있는 토착민 집단들 가운데 있다. 이 집단들 가운데서 차크마족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점점 더 많은 차크마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는 불교와 부족 지도자들로 하여금 개종자들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하도록 초래했다. 이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현지 불교도들과 토착민 집단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한 저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극단적인 불교도들에 의해 행해진다. 대부분의 힌두교 공동체들에서 지도자들과 가족들은 기독교 개종자들이 힌두교로 돌아오도록 압박을 가한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여성

방글라데시는 문화적으로 계급을 기반으로 하며 가부장적인 나라이고, 여전히 여성이 살기 힘든 곳이다. 특히 개종자들은 가족 및 지역사회에 박해에 취약하다. 개종은 문화와 종교에 대한 배반으로 간주되고 남성에 대한 높은 의존, 성폭행, 강간, 그리고 강제 결혼은 흔하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할 수 있다. 납치와 강제 결혼은 난민 캠프에서도 포함해 모든 기독교 여성들과 소녀들을 향한 분명히 실재하는 위협이다. 많은 소녀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고, 법의 집행은 불충분함이 드러났다.

- 납치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폭력 - 정신적 / 성적

남성

방글라데시의 가부장적인 문화는 흔히 남성들이 먼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초래하고, 남성들과 소녀들은 가족들 안에서 리더로 여겨져 흔히 박해에 가장 먼저 직면한다. 이들은 보통 구타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잘못된 기소와 투옥의 희생자가 된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현지 무슬림 지도자들에 의한 압박은 남성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남성들이 주요 제공자이기 때문에 만약 신앙을 이유로 직업을 잃거나 투옥되면 이는 온 가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코로나 19팬데믹에 의해 악화되었다.

- 잘못된 기소
- 마을 / 국가에서 강제 내쫓김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 - 신체적 / 정신적

방글라데시 기독교 박해지수 5년 동향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3	30	69
2022	29	68
2021	31	67
2020	38	63
2019	48	58

이번 보고기간은 작년에 비해 0.8점 더 높아진 것으로 보였고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개종자들이 대부분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 갇히면서 가족들로부터 감시와 제한을 당하여 삶의 개인영역과 교회영역에서의 압박이 증가해 점수가 높아졌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2021년 10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2021년 12월: 가로족 출신의 두 가톨릭 소녀들은 마이멘싱에서 강간을 당했다.
- 2022년 1월: 바리살에 있는 Padrishibpur에서 온 91세의 가톨릭 신자 Malkam d`Costa는 약물 과용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그의 가족 구성원들 다섯 명도 약물 과용을 당했지만 살아남았다. 그의 아들은 2021년의 한 강간 사건에서 무슬림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 2022년 9월: 가지푸르에 있는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가톨릭 기독교인 Sabuj Bernard Gosal은 납치를 당하고 며칠 뒤에 살해당한 채로 발견되었다.

보고 연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당한 기독교인	사유 재산이 파괴되거나 몰수당한 기독교인	국내 실항민이 된 기독교인	공격을 당하거나 폐쇄된 교회들 또는 기독교 건물들
2023	20	30	230	10
2022	400	135	200	200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수가 주어졌고(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영역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사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 개종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흔히 자신이 개종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로 선택한 이들은 규칙적으로 괴롭힘, 따돌림, 그리고 흔히 위협을 당한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가족의 압박과 사회적 감시로 인해 다른 기독교인들과 만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가정영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종교적 믿음에 따라 가정을 꾸리는 것은 도전적일 수 있다. 기독교 의식은 폭도의 폭력을 인해 자주 방해 받는다. 이슬람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들과 이슬람 교육의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차별,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방글라데시에서 공부하는 젊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학에 대한 교육적 편견은 강하다. 이는 개종자인 부모들에게 특히 더 문제가 된다. 만약 아이들이 강제적으로 계속 이슬람 수업에 참여하고 이슬람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면, 이는 자녀들을 그들의 신앙에 따라 양육할 부모들의 권리를 방해한다.

공동체영역

기독교 공동체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소수인 것을 고려해볼 때, 이들은 사회적 및 경제적 보장 면에서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들에 의해 휘둘린다. 극단적인 이슬람의 압박은 공동체의 더 폭넓은 부류들을 부추겨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여 그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조장할 수 있다. 또한 개종자들의 집단들을 겨냥한 폭도의 폭력도 최근에 증가했다. 공식적으로, 1972년 채택된 방글라데시 헌법 제28(1)조는 “국가는 종교, 인종, 카스트, 성별 또는 출생지를 이유로 시민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선언하고, 제29조는 공직에서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수집단들과 특히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만연한 차별에 직면한다.

국가영역

방글라데시 헌법 제41(1)(a)조는 시민이 종교를 자유롭게 공언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전파할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법적으로 개종은 매우 간단해 보인다: 법은 개종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그 또는 그녀가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종교를 바꿨다는 것을 진술하는 작성된 서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무

슬림이 되고자 하는 모든 기독교인, 불교도, 또는 힌두교도에게 이 과정은 거의 형식상의 절차이다. 그에 반해,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들은 강한 가능한 법적 문제들에 더해 사회적 및 가족적 압박에 직면한다.

교회영역

최근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늘어나는 적대감은 활기찬 교회 공동체를 짓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많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은 기독교 교회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전도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이들을 괴롭히고 폭력으로 위협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가족과 더 넓은 지역사회 당국들에 의해 심한 정밀한 조사에 직면한다. 이로 인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폭력적인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무서워한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방글라데시는 다음 국제 조약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협약 (CAT)
4.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5.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방글라데시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들에 의해 배척을 당하고 반대에 직면하고, 이혼과 자녀 양육권 상실로 위협을 당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다 (ICCPR 제18조, CRC 제14조)
- 기독교인들은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에 제한을 직면하고, 민간 부문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ICCPR 제25, 26조, ICESCR 제6조)
-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 논의하거나 전도에 참여할 때 괴롭힘과 폭력에 직면한다 (ICCPR 제18, 19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미 국무부의 2021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1페이지)에 따르면:

“한 때 소수 민족이기도 했던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한 소수 종교의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정부가 토지분쟁에서 생겨나는 강제퇴거 및 토지 압수를 막는데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계속해서 폭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종교적 장소, 축제, 그리고 행사에 법 집행 담당자들을 배치했다. 미

디어, 활동가들, 그리고 공식적인 추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사원에 있는 한 힌두교 신의 무릎에 쿠란 한 부를 놓은 페이스북 게시물이 올라온 것에 응해 무슬림 무리는 쿠란이 훼손당했다며 힌두교 신자들을 공격



했고 4-14명 사이의 개인들을 살해했다. 또한 무리는 전국의 힌두교 사원 및 재산을 공격했고, 폭력은 10월 24일까지 계속되었다. 국가의 힌두교 지도자들은 힌두교도들은 추가적인 폭력이 두려워 11월 4일 등명제 때 자신들의 사원과 집에서 비공식적 의식을 열 것을

찬성하고 대중 기념 행사를 삼갔다. 송배자들은 힌두교도들을 위한 신변 안전 조치의 결여에 항의해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렸다. 알자지라에 의하면, 한 토착민(벵골인이 아닌) 소수 집단 출신의 활동가들이 그들의 민족 집단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구성원을 살해했다."



방글라데시 오픈도어 사역

방글라데시의 교회들을 강화하기 위한 오픈도어의 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성경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지상 대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자화 및 준비 제공
- 현지 언어로 된 성경 및 이외 기독교 문헌 제공
- 문해력 및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를 통한 지원 제공
- 박해의 희생자들에게 즉각적인 구호 제공

북한선교현장

김서운 전도사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1)



나는 함경남도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부모님은 출신 성분이 좋으셨고 당원이셨고 흔히 말하는 충성분자였다. 아버지는 DMZ 군사분계선 최전방에서 특수부대원으로 10년간 군 복무를 하셨고, 제대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동약관리소에서 간부로 일하셨다. 어머니도 8년간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셨고, 제대 후 친지들의 중매로 아버지와 결혼하셨다.

나는 양가의 관심 속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대를 이을 남아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다. 어린 기억에 친할머니 댁은 큰 기와집이었고 할머니께서도 항상 고풍스럽게 한복을 차려입고 지내셨다.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그러다보니 대를 이을 손주의 존재가 중요했고, 아들을 낳지 못했던 어머니를 향한 타박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 가족은 결국 아들을 입양했다. 그 친구가 우리 집 셋째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셋째의 생김새가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은 했었다. 그래도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한 가족으로 잘 지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막내 남동생을 출산하셨다. 내가 9살 쯤 되었을 때였다.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다. 갑자기 여러 명의 장정들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집안을 헤집어놓았다. 어머니는 바깥 볼일을 보시다가 길에서 붙잡히셨다고 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당시 어머니는 출산 후 몸조리를 막 끝내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나는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몹시도 궁금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 또 친척들 모두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쉬쉬하는 것이 느껴졌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궁금한 어머니의 행방이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그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아버지도 침묵하시고 가족 분위기가 싸해졌다. 어떤 친척들은 뒤에서 우리 어머니는 끝장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느새 부턴가 나의 하루 일과는 “엄마 기다리기”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엄마가 오실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작은 문소리에도 혹시 어머니께서 돌아오신 것인가 하고 벌떡 일어났다.

공교롭게도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기근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무시무시한 굶주림은 우리 가족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꼬박꼬박 일터로 출근하셨지만, 제대로 된 배급이 나오지 않으니 집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가장 딱한 것은 아직은 너무 어린, 젖을 먹어야 할 시기에 엄마를 빼앗긴 막둥이였다. 먹일 젖도 없고, 젖을 담아 먹일 젖병도 없었다. 아버지는 강냉이 국수를 푹 삶아서 죽으로 만들어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떠먹여보기도 했지만 너무 투박하고 거친 그 음식을 아이는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울었다.

일주일을 굶으니 문자 그대로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기운이 없어 벽에 몸을 기대고 있는데 막둥이가 배고프다고 막 울면서 나한테 칭얼댔다. 그래도 어머니 없

는 동안에는 장녀로서 동생들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업어서 달래기도 하고 물이라도 먹여보기도 하고 했지만 일주일정도 지나니까 그럴 기운이 남아 있지 않았다. 막내가 보채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지칠대로 지친 나는 칭얼대는 동생을 앉아주는 거녕 외면했다. 그리고 울다 지친 아이는 쓰러져 잠들었다. 그렇게 쓰러진 아이가 잠들었다고 착각하고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따라 막내는 한번 울고 난 이후로는 쪽 잠을 잤다. 밤이 되어 퇴근하고 들어오신 아버지는 오늘 하루도 잘 버텨는지 물으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막내가 너무 오래 자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시면서 막내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으셨다. 그리고는 아이의 상태를 이리 저리 확인하시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셨다. 나는 설마 하는 생각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는 담요 째로 아이를 둘둘 싸시더니 곧장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동생이 죽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당연히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의 손에는 아이가 들려있지 않았다. 그렇게 막내는 이 세상 공기를 얼마 맛보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고생하다가 깊은 땅 속에 묻힌 것이다. 그날따라 나에게 웬일로 크게 울며 칭얼대던 것이 막내에게는 마지막 안간힘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남동생을 죽었다는 죄책감에 꽤 오랜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었다. 그 생각만 하면 나는 그저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굶주림은 계속되었다. 우리를 보살필 마땅한 수가 없으셨던 아버지는 우리를 외가댁으로 보내셨다.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에게 맡겨서 아이들만 기차를 태워 보냈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외가댁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외가댁에 도착한 우리를 보고 외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미리 연락도 드리지 않고 아이들만 덩그러니 보내셨으니 누군들 당연히 놀랐을 것이다. 나라 전체가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외가댁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노부부만 사시는 집인지라 적은 식량이나마 조금씩 아껴가며 그래도 살아가고 계셨다.

그런데 뱃속에 거지가 사는 것 같은 손주 셋이 찾아왔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네 식량은 거덜나버렸다. 그래도 외할머니께서는 손주들 먹이시겠다고 산에서 아직 설 여문 감자를 캐다가 먹이시는 등 갖은 애를 다 쓰셨다. 그렇게 여름을 그 집에서 보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져갔다.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두고 사라질 수 있는지? 어머니만 계셨다면 막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혹독하게 벌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내버려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께서 혹시 돌아가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다고 밤마다 달님에게 간절히 빌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른 아침, 어머니께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신 것이다. 오랫동안 바래왔던 어머니와의 상봉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순간은 기쁨과 반가움보다 씁쓸하고 서먹서먹한 시간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오시자마자 막내를 찾으셨고, 막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으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오열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반갑게 달려가 안기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한 가운데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나이를 먹고 나서야 그 당시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잡혀가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외삼촌이 건네준 성경책 때문이었다. 외삼촌은 중국을 왕래하시면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인과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외삼촌은 그분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달러를 지원받고 성경책도 받아오셨다. 그렇게 받은 지원금과 성경책을 어머니에게도 건넨 것이다. 사실 고난의 행군은 어머니가 잡혀가시기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어린 나이의 나는 잘 몰랐지만 주변에는 이미 굶는 사람이 나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지원 받으신 달러가 있었기에 우리 집은 먹는 걱정 없이 지냈던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외삼촌은 외숙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날도 외삼촌과 크게 다투던 외숙모는 외삼촌이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당국에 고발해버리고 말았다. 외삼촌은 붙잡혀 심문을 받았고 가택 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결국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발각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수상한 책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어머니도 붙잡혀 가신 것이다.

어머니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어머니는 성경책을 돌돌 싸매어서 외진 곳 벽 귀퉁이 틈 사이에 꼭꼭 숨겨 놓으셨는데 그 덕분에인지 철저한 가택수색에도 발각당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보위부의 수사와 고문은 지독했다. 성경책의 실물이 발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을 괴롭히고 고문했다. 만약 어머니께서 숨겨 놓으셨던 그 책이 발견되었었다면 본인 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온 가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아니 고문에 못 이겨 없는 죄라도 억지로 자백했다면, 혹은 그 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서 유도 질문에 걸려들었다면 어머니는 꼼짝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사형당하셨을 것이고 우리 가족도 연좌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를 정도의 고문 속에서도 어머니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셨던 이유는 본인의 목숨보다는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피해가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이셨을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성경책이라는 것에 대해 보거나 들어볼 일이 없었다. 다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상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학교에서는 선교사들이 미군과 합세해 주민들을 죽이고 빼앗았고 배웠다. 교회는 사람 잡아먹는 집단이고 교회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 그만큼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 책을 전달받았다는 혐의가 씌워진 순간 어머니의 그간의 모든 충성과 헌신은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말았다.

죄를 자백하라는 보위부의 압박은 상상 이상이였다. 원래 당원이었고 성분이 좋았던 어머니였지만 그 혐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셨다. 고문이 동반된 심문은 물론이고 제대로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좁은 독방에 수감되어 있으셨다. 이렇게 오랜 기간 심문을 진행했지만 어머니로부터 더 이상의 혐의점은 찾지 못했고, 원래 성분도 괜찮은 편이셨던 데다가 외갓집에서 온갖 방면으로 손을 쓰셔서 어머니는 겨우 살아서 출소하실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몸 상태가 너무나 악화되어 매우 허약한 상태였기에 친척 집에서 한 달 가량 요양을 하시고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다. (계속)

오픈도어위클리

OpenDoors WEEKLY

한국오픈도어는 오픈도어위클리 모바일 주간 소식지를 통해서도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소식지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Ch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채널 추가하세요 +



Heart To Heart

New Year 2024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오픈도어선교회와 함께
박해 받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지지해주신
모든 동역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삶의 희망과 목적을 회복해 감을 믿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도
힘차게 함께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Happy New Year

2024년 한국오픈도어 사역계획

국제오픈도어는 현재 약 69개국의 나라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기존 사역을 지원하는 것과 해마다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자는 전세계 약 69개국의 나라에서 해마다 추진되는 현장 사역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후자는 현장의 필요에 따라 연간 약 300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로 새롭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앞으로 이러한 국제오픈도어 사역을 선택하고 집중하여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국제오픈도어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박해현장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역교회와 매칭하여, 박해 현장 방문, 현장사역 참여, 기도와 물질로 직접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선교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오픈도어를 후원하는 지역교회와의 지역별 연대를 강화하고, 선교현장에 대한 이해를 공

유하며, 오픈도어 사역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세계선교에 어느 나라 민족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다시 사용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전세계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박해현장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계획입니다. 오픈도어 사역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많은 교회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 김경복선교사 드림

구분	사역내용	비고
1월	월드와치리스트(박해지수) 발표(17일, 수)	서울(선교회 회의실), 기자대상
2월	지역별 월드와치리스트 설명회	경기, 충청, 강원
3월	지역별 월드와치리스트 설명회	호남, 영남, 제주
4월	중동(MENA)의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순회기도회	지역교회별 일정조율
5월	아프리카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순회기도회	지역교회별 일정조율
6월	북한 지하교회를 위한 순회기도회	지역교회별 일정조율
7월	IPM(중앙아시아) 사역현장 방문	개인별, 교회별 참가자
8월	IPM 사역현장(미얀마 혹은 인도) 방문	개인별, 교회별 참가자
9월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	지역교회별 일정조율
10월	제3회 머스카슬론 한국대회(9-10일)	네델란드인 30명, 연천, 철원
11월	IDOP 박해 받는 교회를 위한 국제기도의날	설명회 및 지역교회 동원
11월	전세계 박해 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성탄절 캠페인	지역교회별 및 개인별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3.전화(02-596-3171/010-7548-3171)또는 메일(odsk@opendoors.or.kr)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 4.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위 표를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 보내실 곳 : 010-7548-3171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